

P-54

공여 난자를 이용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 후 산과적 결과

김해숙 · 양광문 · 차선화 · 허 걸 · 송현정 · 궁미경 · 강인수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제일병원 산부인과

Background & Objectives: 난자 공여 후 성공한 임신에서 산과적 예후 및 이에 미치는 영향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Method: 1994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0년간 삼성제일병원 불임클리닉을 방문한 불임환자 중 공여 난자를 이용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에 의해 임신한 7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, 동일기간에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환자 중 나이, 산과력 등을 조절한 135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두 군의 산과적 예후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

Results: 임신초기유산이 난자 수혜군의 35.1% (26/74), 대조군의 22.2% (30/135)에서 발생하여, 난자 수혜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($p=0.051$). 나이, 산과력 등 임신중독증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임신 중독증이 난자 수혜군의 18.8% (9/48)에서 발생하여 대조군의 7.6% (8/105)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($p=0.054$). 한편, 난자 수혜군을 난자공여자와 수혜자의 관계에 따라 자매군과 비자매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임신 중독증이 비자매군의 28.6% (6/21)에서 발생하여 대조군의 7.6% (8/105)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다 ($p=0.013$). 그리고, 비자매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임신 2삼분기 질출혈 (26.3% Vs 3.9% $p=0.005$) 및 초기유산 (36.4% Vs 22.2% $p=0.116$)이 많이 발생하였다.

Conclusions: 난자 수혜 후 성공한 임신에서 자가이식한 임신에 비해 임신성 고혈압의 위험이 증가하며, 특히 난자 공여자가 면역적으로 관계가 없는 남인 경우 임신성 고혈압의 위험성이 높았다. 결론적으로 난자 수혜 후 성공한 임신은 고 위험 임신으로 간주되어야 하며, 이러한 임신에서 임신성 고혈압의 원인기전으로 어떤 면역학적 원인이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.

P-55

Effectiveness of Intravenous Immunoglobulin Therapy in Women with Recurrent Spontaneous Abortions with Unknown Etiology

양광문 · 박찬우 · 김해숙 · 김혜옥 · 유근재 · 강인수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제일병원 산부인과

Background & Objectives: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Low-Dose Intravenous Immunoglobulin (IVIg) therapy in women with unknown etiology.

Method: Twenty RSA women with unknown etiology who had received low-dose IVIG therapy (IVIg 400 mg/kg every 4 weeks, from 5 weeks to 20 weeks) included in this study. Controls were seven RSA women with unknown etiology who had not received IVIG therapy. In this study, associated with aneu-